

음악대학 회원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 제도 시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학생들이 학생입장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음악회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중들도 주어진 음악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음악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Friends)’라는 회원제도를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는 문화예술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새로이 마련한 회원 제도이다. 회원에게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기획하는 음악회의 관람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의 회비는 음악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을 돕고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음악대학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의 기획과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서울음대 발전기금 모금 안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발전기금은 시설개선 및 모교 재학생 지원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재원확보로 이어져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입상 소식

국악과

- **동아콩쿠르** 금상 윤도희 (05가야금) / 은상 이승철 (04대금)
동상 신동청 (06작곡) / 동상 송민섭 (04피리)
-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금상 김현채 (03가야금) / 금상 최 건 (06판소리)
은상 이아미 (96정가) / 은상 이정현 (03거문고) / 은상 유경은 (06대금)
동상 김현수 (01) / 동상 박연지 (01해금)

성악과

- **제5회 클라우디아 파예프 콩쿠르** 1위 및 대상 박지민 (01)
-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 1위 양태중 (96)
- **제3회 서울국제음악콩쿨** 1위 공병우 (97)
- **페루초 탈리아비니 국제 성악 콩쿠르** 2위 및 심사위원 특별상 이웅광 (00)
- **벨기에 베르비에 국제 성악콩쿠르** 2위 문정현 (99)
- **제12회 그리스 국제 콩쿨 성악** 3위 김민지 (04)
- **제9회 마담 버터플라이 콩쿨** 3위 최강지 (99)
- **2007 마리아칼라스 콩쿨**
1위 없는 2위 문정현 (99) / 3위 양태중 (96) / 4위 및 특별상 이웅광 (00)
- **제33회 중앙음악콩쿠르**
(남성) 1위 조현광 (02) / 공동 3위 정동효 (02), 이승수 (04)
(여성) 2위 이지나 (01)
- **제47회 동아음악콩쿠르**
(남성) 1위 조정기 (99) / 3위 정기열 (00) / (여성) 1위 장혜지 (02)
- **KBS 신인음악콩쿨** (남성) 금상 조현광 (02)
- **제20회 이대웅콩쿨** 대상 이승수 (04)
(남성) 2위 박경환 (01) / 3위 김은국 (02) / 장려 김유중 (03)
(여성) 2위 장 윤 (05) / 3위 정혜민 (01) / 장려 박소영 (05)
- **제56회 이화경향콩쿨**
(남성) 1위 김은국 (02) / 2위 전태상 / 3위 서대원 (04)
(여성) 1위 장혜지 (02)
- **세종음악콩쿨**
(남성) 최우수상 김성욱 (01) / (여성) 우수상 이정은 (00)

회원에게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음악회의 초대권 2매 및 음악회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서울음대 소식지 우송
- 회원카드 제공

회비

1년 회비: 10만원 / 2년 회비: 20만원 / 3년 회비: 25만원 / 4년 회비: 30만원
 농협 079-01-469806 (예금주: 서울대음악대학)
 ※가입신청에 관한 문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02-880-932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농협 079-17-065663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신한은행 100-023-845777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문의: 음악대학 학장실 02)880-7900, 음악대학 기획홍보실02)880-9320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02)880-5026, 871-8146 / Fax: 02)872-4149

수리음악콩쿠르

- (남성) 2위 김은국 (02) / 3위 문현호 (02) / 장려 이승수 (04)
- (여성) 1위 박소영 (05)
- **제34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이승수

작곡과

- **제47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박용빈 (05) / 2위 궤태평 (04), 박수철 (05)
- **KBS 관현악 공모전** 입상 권지원 (97)
- **제34회 중앙음악콩쿠르** 2위 정영빈 (석사)
- **창악회 콩쿨** 1위 양수철 (03)

피아노

- **제47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함수연 (04)
- **음협 해외파견콩쿠르** 3위 박창규
- **제34회 중앙음악콩쿠르** 2위 조성수 (06)

현악

- **International Johannes Brahms competition** 1위 및 special prize 배지혜
- **19th Nippon Harp Cometition: Professional division** 1등 정연화
- **오사카 국제 콩쿨 현악부문** 2위 한지희

관악

- **음협 해외파견콩쿠르**
1위 유지홍 (05) / 2위 백송희 (06), 안다혜 (05) / 3위 유재우, 한성석
- **음악협회학생콩쿠르** 2등 황수진 / 3위 오주연
- **오사카 국제콩쿠르 금관부문**
1위 이나리 (06) / Trumpet 2위 유재우, 2위 김현영 (05)
- **우현콩쿠르** 호른 1위 백송희 / 트럼펫 2위 양세준, 김지영 / 트럼본 1위 이나리
- **동아콩쿠르** 1위 오민정 / 2위 유지홍 / 3등 이진아
- **부산콩쿠르** 2등 안다혜



음대 소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뉴스레터 제3호

발행인: 정태봉

발행처: 151-742)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울음대 기획홍보실 Tel: 02)880-9820 Fax:02)882-9320

【학장 인사말】

초록빛 관악에 가득 울려 퍼지는 팡파르



이제 봄이 오나 하고 봄 향기에 좀 취해보려 했는데, 어느새 여름이 성큼 곁에 다가와 얇게 걸친 옷마저 무겁게 여겨지도록 만듭니다. 만물의 생기의 움직임이 절정에 이르는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을 즐기롭고 부지런하게 잘 보내면 알찬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가을이 곧 올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금관악기의 화려한 팡파르가 초록빛이 나날이 짙어져 가는 관악의 마루에 또 골짜기에 가득 울려 퍼지는 듯 합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 우리 음악대학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모두 다 멋지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연주행사가 펼쳐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수님들은 교육, 연구와 연주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수많은 학생들이 국내, 국외의 콩쿠르에 참가하여 탁월한 기량을 뽐내며 입상하였습니다. 우리 음악대학 가족들은 모두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탄탄하고 미래는 눈부시게 환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또 가을걷이를 위해 땀 흘려 일할 것입니다. 여름이 제아무리 덥다한들 우리 열정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열치열(以熱治熱),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라면 한여름의 불볕더위라 해도 참 심정계 제압해 버릴 것입니다. 풍성한 가을걷이를 머릿속에 그리며 일하는 농부에게 못 이길 피곤함이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여름을 보내노라면 마침내 가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악의 마루에 또 골짜기에 가득 울려 퍼지는 화려한 팡파르는 우리가 신념과 의지로 연주하는 음악, 바로 그것입니다.

2008년 5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정 태 봉

서울대학교 학부모 초청행사

지난 4월 26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학부모 초청행사가 열렸다. 식전 행사로는 음대 학장님과 교수들의 인사말씀과 음악대학을 소개하는 동영상 상영하였다. 동영상은 음대 건물을 비롯하여 그동안 서울음대를 빛낸 음악인들과 각 과의 정기연주회, 강의 내용들과 연구소, 그리고 해외 음악원들과의 교류 내용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도서실과 전자음악실, 국악 관현악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들을 탐방한 후 본부행사에 참여하였다. 식후에 본부 행사로는 미술관의 인도미술전 특별 인도음악연주회와 현악4중주, 국악

연주, 금관5중주 및 갈라 콘서트가 준비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화관 대강당에서는 음악대학에서 마련한 갈라 콘서트가 열렸는데 김덕기 교수의 지휘로 SNU Philharmonic Orchestra와 함께 백주영 교수, 박종화 교수, 박현재 교수, 김인혜 교수가 협연하였으며 가야금 앙상블 사계와 서울음대 오페라연구소 중창단, SNU Brass Ensemble, SNU Vocal Choir가 멋진 연주를 하였다. 이번 학부모 초청행사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서울음대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2008년 각 과 소식

Ⅰ 국악과 행사

5월 23일 봄 정기연주회(문화관)

11월 중 국악과 정기연주회

Ⅱ 기악과 피아노전공 행사

3월 18일 “Alexander Toradze” Master Class

5월 16일 “Robert Roux” Master Class

Ⅲ 기악과 관현악전공 행사

5월 14일 Symphony Orchestra “Opera Gala Concert” (49동 예술관)

5월 20일 Philharmonic Orchestra 정기연주회 (49동 예술관)

5월 21일 Symphony Orchestra “Verdi & Wagner” (문화관 대강당)

5월 27일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회 (관악청소년 문화원)

5월 27일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회 예정 (49동 예술관)

5월 중 SNU Percussion Group 정기연주회

6월 14일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 26-27일 SNU Wind Ensemble 지방연주 (충남 당진, 대구)

Ⅳ 성악과 행사

5월 14일, 21일 오페라 La Traviata Gala Concert

10월 중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 오페라 “Rigoletto”

Ⅰ 작곡과 현대음악 시리즈 Studio2021 2008 봄 시즌

SNU New Music Series Studio2021 2008 Spring Season

▶ Composer's Studio

I . 작곡가 이웅주, <오페라 ‘운동주’에 대하여>

3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203

II . 작곡가 황성호 <도시 칸타타, ‘VIDEO Cantata’에 담겨진 텍스트

이미지의 음악적 해석>

3월 17일(월) 오후 1시 30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203

▶ Mesias Miguashca at SNU

Seminar <Angewandte Akustik als Inspiration

작곡의 착상으로서의 음향>

I : 4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203

II: 4월 23일(수) 오후 3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3-107

Concert <Electro-Acoustic Music of Mesias Miguashca>

4월 25일(금) 오후 7시 /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Sound Installation <Ton-Geographie 소리의 지형>

4월 21일~25일(월~금) / 문화관 전시실 (전시시간: 오전11시~오후6시)

▶ Michael Finnissy at SNU

Performer's Studio <Pianist 장지혜, Piano Etudes of the 20-21 century>

5월 13일(화) 오후 7시 /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Composition Master Class (Open)

5월 14일(수) 오후 4시~6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203

Lecture & Concert

• Lecture <고은이, Ferneyhough 음악의 연주해석 및 철학적 고찰>

<Finnissy, The Background to New Complexity>*

5월 17일(토) 오후 2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203

• Concert <Finnissy plays his contemporaries>

5월 17일(토) 오후 7시 /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Lecture Concert <Finnissy plays>

5월 19일 (월) 오후 1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20

* 이 강연은 서양음악학회와 공동주관합니다.

주최 · 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문의_880-7944 / http://www.studio2021.net

2008년 1학기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 SNU TUESDAY CONCERT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무료예술공연 행사로 음악회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4년 1학기 ‘수요음악회’로 시작된 본 음악회는 1996년 2학기부터 ‘화요음악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2008년 1학기 화요음악회는 목관5중주 아이그룹(I-Goup)의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대 음대 내에서 치뤄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국악 앙상블 삼태성과 아라연, Piano Quintet VIRTUÔSE와 Sol trio의 공연,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트리오,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 장지혜의 독주회까지 최고의 기량을 갖춘 연주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찾아갔다.

Ⅰ 공연일정

1회| 목관5중주 아이그룹(I-Group)

일시: 4월 22일 오후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회| 국악 앙상블 삼태성 / 아라연

일시: 4월 29일 오후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3회| VIRTUÔSE / Sol Trio

일시: 5월 6일 오후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4회|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트리오

일시: 5월 13일 오후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5회| 피아니스트 장지혜 Recital

일시: 5월 20일 오후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연구소 소식

Ⅰ 동양음악연구소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는 현재 국내학술회의와 국제학술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는데, 국내학술회의의 경우는 2006년 제 7회 회의까지, 국제학술회의는 제9회 국제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 동양음악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분야의 여러 학자들과 함께 동양음악연구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양음악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내, 국제학술대회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2008년 9월 첫째 주 금요일에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그 주제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국내외 학자들이 동양음악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Ⅱ 서양음악연구소

▶ 2007년 행사

본교 서양음악연구소는 매 학기 "아카데미아 무지카"라는 이름으로 초청학술회담을 지난 2007년 1학기 이래로 실시해 왔다. 이 시리즈에서는 음악학과 관련된 인사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물론 초청된 강연자에게도 학문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취지의 행사는 이미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행사로, 교외의 인사를 초청하여 학문적인 다양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기획되고 있다. 지난 2학기에는 총 세 차례의 초청강연행사를 가졌다. 지난 11월 13일에는 본교 미학과 강사로 재직중인 정혜윤 선생님이 "현대 영미음악미학의 동향: 음악과 정서"를 발표했다. 또한 12월 6일에는 시인이자 대중음악평론가, 또한 그룹 3호선 버터플라이의 리더로서 음악 문화 전반에서 활동 중인 성기완 선생님이 “아프로(afro), 호환되는 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세 번째 행사에서는 안소영 선생님(한양대 강사)이 “네오리만이론의 분석방법 및 효용성”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학기 아카데미아 무지카는 순수음악이론부터 월드뮤직에 대한 생각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다양한 학문적 자극을 제공했다.

또한 본 연구소에서는 매 학기 렉처 콘서트를 개최하여 음악학의 연구활동을 연주분야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 첫 번째 단추로서 개최된 행사는 자크티보 스트링 트리오의 ‘쾨베르크의 현악3중주 op. 45’였다(2007년 11월 30일). 흔히 연주되지 않는 이 곡에 대해 자크티보 스트링 트리오는 매혹적인 연주와 강연을 곁들여 주어 이 곡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 연주자나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도 매우 진지한분위기 속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 음악이론연구 12집(2007) 발간

본 연구소에서 발간되고 있는 학술지 음악이론연구는 지난 2006년 한국학술진흥 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2007년도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친 6편의 논문과 “음악과 종교”를 주제로 한 STUDIO 2021의 특강 전문의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 2008년 행사

1. 렉처콘서트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아우어 & 아마넷 스트링 콰르텟>

3월 26일 오후 2시 30분

주제: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현악4중주와 피아노 협연을 위한 편곡버전)

라벨 현악4중주

2. 학술대회 <음악사 주요작품 연구시리즈>

4월 26일 오후 1시~5시

발표: 이성률(한양대 강사), <모차르트, 마술피리>

권송택(한양대 교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정경영(한국예술종합학교 고음악연구교수),

<몬테베르디, 탄크레디와 클로린다의 싸움>

질의: 김정숙(강남대 대우교수)

이민정(건국대 교수)

이가영(연세대 강사)

3. 렉처콘서트 <리코더 주자 Ingrid Breitenfeld>

5월 16일 오후 2시 30분

내용: 리코더의 역사와 문헌-중세로부터 현대까지

4. 아카데미아 무지카

• 강은수(작곡가) <나의 작품세계>

• 이웅숙(음악평론가) <음악비평의 연구와 실제: 오페라를 중심으로>

5. 음악학 총서 시리즈 제10권 출간예정

<20세기 작곡가 연구4> 이석원, 오희숙 책임편집

허영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라이히” / 이석원(서울대 교수) “볼레즈”

김정진(서울대, 한양대 강사) “펠트만” / 오희숙(서울대 교수) “슈톡하우젠”

김은하(울산대 객원교수) “카렐” / 주대창(광주교대 교수) “쾨데레츠키”

한상명(대진대 강사) “헨체” / 전정임(충남대 교수) “노노”

서의석(소르본느 박사수료) “글래스”

6. 새 총서 시리즈: <음악사 주요작품 연구시리즈>

발간예정: 오희숙(서울대 교수) <쾨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주대창(광주교대 교수) <베토벤, 9번 교향곡>

Ⅰ 오페라 연구소

3월 25일(화) “La Traviata” 신세계 문화홀

4월 10일(목)~4월 13일(일) “La Traviata” 세종 대극장

5월 9일(금)~5월 10일(토) “La Traviata” 의정부 예술의 전당

5월 16일(금)~5월 17일(토) “Rigoletto” 고양시

6월 18일(수)~6월 22일(일) “Don Giovanni” 세종 M 씨어터

7월 셋째 주부터 “Rigoletto” 구민회관

Ⅰ 개교 120주년을 맞은 동경예술대학

(Tokyo 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우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 동경예술대학이 2007년 10월 개교 120주년을 맞았다. 동양권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현대식 예술교육기관으로 꼽히는 동경예술대학은 2007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교기념식을 비롯하여 개교기념 미술전시회 및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또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동경예술대학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각종 예술교육기관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아시아의 예술을 세계로(Sending Arts from East Asia to the World)’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우리 음악대학의 정태봉 학장과 미술대학의 최인수 학장,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황성호 교무처장,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의 김영호 학장이 참가하였다. 동경예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geidai.ac.jp/english/index.html)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국제교류

일본 동경예대와 서울음대 관악 합동 연주



지난 2007년 11월 28일 동경예대 콘서트홀에서 서울음대 관악합주와 동경예대 관악합주 합동공연이 있었다. 동경예대는 메이지 20년인 1886년에 세워진 학교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 최고의 예술대학으로 2001년 4월 체결된 서울음대와 동경예대의 교류협정은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음악대학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교류협정 체결 이듬해인 2002년에 열린 서울대학교 제22회 정기오페라 <가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국제교류기념 동경예술대학 초청공연

만하임 방문교수

2007년 2학기,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의 방문교수 프로그램으로 서울음대의 서혜연 교수(성악), 이돈웅 교수(작곡), 김승근 교수(국악), 신수정 전 교수(피아노)가 만하임음대에 방문하였다. 그리고 만하임음대에서는 Katharina Dau 교수(성악), Leonhard Rieckhoff 교수(성악 반주) 그리고 Ehrhard Wetz 교수(트럼본)가 서울음대에서 마스터 클래스와 개인·실내악 레슨 및 독주회를 개최했다.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와의 인연은 2001년 독일에서 개최된 합동연주회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 관현악전공생들로 구성된 연합오케스트라는 서울음대의 임현정 교수와 만하임음대의 클라우스 아르프 교수의 지휘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과 R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함께 연주하며 음악적인 교감을 나눴다. 두 음악대학의 우정은 2001년 6월에 맺은 서울음대-만하임 국립음대 교류협정 체결로 더욱 돈독해졌다. 이후 서울음대-만하임음대 연합오케스트라는 2002년 10월 16일 예술의전당에서 R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연주했고, 2005년에는 세계적인 연주홀인 카네기홀 무대에서 함께 연주해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울음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하임 국립음대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만하임 국립음대 홈페이지(<http://www.muho-mannheim.de/>)를 참조하면 된다.

으로 꾸며졌다. 서울음대의 박세원 교수의 기획 및 연출, 김덕기 교수의 지휘, 그리고 동경예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세 명의 학생과 동경예대 성악과 교수인 히라노 타다히코가 공연에 참여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10명의 학생이 동경예대를 방문해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열어 서울음대의 높은 음악적 수준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관악 합동 연주에서는 김영률 교수의 지휘로 R.Wagner의 ‘Tannhäuser Overture’, K.Urata의 ‘3 Symphonic Movements for Symphonic Band’, A.Copland의 ‘El Salon Mexico’, P.A.Grainger의 ‘Lincolnshire Posy’, J.S.Chance의 ‘Variations on a Korean Folk Song’을 연주하였다. 이번 연주를 통해 서울음대와 동경예대는 보다 돈독한 유대관계를 확인하고 양교가 보다 세계적인 음악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경예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geidai.ac.jp/>)를 통해 얻을 수 있다.

2007 Autumn Festival in Estonia Tallinn

2007년 9월, 동유럽 국가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열리는 ‘2007 Autumn Festival in Estonia Tallinn’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초청되어 이신우 교수(작곡)와 SNU New Music Ensemble(임지영, 전제성, 이윤하, 고우리, 김우림)이 강연 및 연주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는 2007년 Estonian Academy of Music and Theatre의 아홉 번째 가을 시즌 페스티벌이 개최된 것으로 Estonian Academy가 설립된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을 시즌 페스티벌은 ‘Estonian Music Festival’이라고 불린다. 2007년 본 페스티벌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현대음악이었다. 주로 현대음악과 관련된 공연, 강의, 마스터클래스, 워크숍을 다루었는데 2007년의 영예 초청 작곡가는 크리스토프 펜데레츠키와 서울대학교 교수진, 그리고 재학생이었다. 또한 프랑스 문화원의 후원 아래 ‘철학과 전자음악’을 주제로 한 전자음악 컨퍼런스도 개최되어 프랑스의 Jaques Serrano, Elie Durning, Peter Szendyn and Bastien Gallet 교수가 이틀 동안 ‘철학과 전자음악’ 강의와 워크숍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일주일동안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이신우 교수는 ‘Contemporary Music in Korea since 1970’이라는 제목으로 윤이상, 강석희, 백병동, 박-과안영희, 진은숙 등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음악과 그 흐름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다. SNU New Music Ensemble은 윤이상, 유병은, 이신우, 강석희와 같은 한국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작품과 작곡과 졸업생인 박태평의 곡을 연주하였다.

백주영의 Monologue-바흐와 이자이 무반주 소나타 전곡 독주회



지난 2007년 10월 20일,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교수의「바흐와 이자이 무반주 소나타 전곡 독주회」가 열렸다. 바로크 시대의 독일 작곡가 바흐(1685~1750)와 벨기에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이자이(1858~1931) 사이에는 얼핏 시대 상으로도 국적으로도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백주영 교수에 따르면 “바흐의 작품을 흠모했던 이자이가 바흐의 작품 구조를 따라서 쓴 곡이 이자이의 무반주 소나타 6곡”이며 “이자이의 소나타 1번은 바흐의 소나타 1번과, 이자이의 소나타 2번은 바흐의 파르티타 3번과 맥이 닿고 있다”고 한다. 오후 3시에 시작된 1부 공연과 7시 30분에 이어진 2부 공연을 합쳐 약 4시간 30분 동안 관객들에게 바흐와 이자이의 곡을 나란히 들려주며 고독하지만 치열하게 음악적 연관을 찾는 연주를 들려주었던 백주영 교수를 만나보았다.

지난해 열린 ‘바흐와 이자이 무반주 소나타 전곡 독주회’는 결코 평범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음악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음악회를 열게 된 동기와 취지는 무엇인가요?

그간 협연이나 실내악은 많이 해왔지만 독주회는 3년 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독주회라 부담스러웠지만 2005년 서울음대에 부임한 이후 첫 번째인 금번 독주회를 통해 많은 것을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바흐와 이자이는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초석이 되는 작곡가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는 바로크 음악의 대표 격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이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인 동시에 작곡가였던 이자이는 바흐의 작품을 너무나도 흠모해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 6곡의 구조를 따라서 무반주 소나타 6곡을 썼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두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다보면 작품 속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를 풀어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러한 흥미로운 점 때문에 다소 힘든 연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바흐와 이자이 무반주 소나타 전곡 독주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두 작곡가의 무반주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젊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학생 때도 하루 동안 이자이 전곡 연주를 한 적이 있었고요. 금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연습해보니 바흐의 곡도 제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학생 때 이자이 전곡 연주했던 기억 때문인지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아무래도 무반주 곡이다보니 오케스트라나 피아노가 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바이올린 음색 하나만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연주를 하는 저보다도 계속 똑같은 음색을 들어야하는 관객이 힘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지요. 개인적으로는 음악적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학구적인 프로그램인데다가 거의 처음 시도되는 기획이어서 홍보를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연주회를 마치고 생각해보니 ‘그래도 많이 초대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약간 있었지요. 그동안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특별히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4시간 이상을 서서 연주하다 보니 1, 2부로 나누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든 감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요구되는 연주회에서는 컨디션과 페이스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주회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곡이 있으신가요?

제일 좋아하는 곡은 바흐의 Sonata 3번 C Major입니다. 개인적으로는 C Major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지요. 바흐 소나타 중 길이가 가장 길지만 좋아합니다.

다른 도전하고 싶은 연주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바흐와 이자이 전곡을 했으니 이제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꼭 전곡 연주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연주하는 저에게 뿐만 아니라 관객도 즐겁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연주회를 하고 싶습니다. 연주회 프로그램에는 어느 정도 학구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주를 할 때 관객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연주자로서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는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연주할 때에는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음악이란 것은 너무 큰 존재고 사람은 너무 작은 존재인데...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자체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야 합니다. 만약 자기의(意)가 강하면 사람은 자칫 ego, 즉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습을 하다보면 잘 안될 때도 있는데 ‘나는 왜 안 돼?’, ‘이거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역시 난 안 되나보다...’ 하면서 좌절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가나 교수들도 처음엔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음악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술가로서의 주관이 뚜렷한 것은 좋지만 너무 우쭐하면 안 되겠지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속해 어울릴 줄도 알아야하니까요.

그러므로 연습할 때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나가야 하고요, 너무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음악적 재능에 감사하며 ‘난 음악을 할 수 있다, 난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남겨주세요.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대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 학교에 올 정도면 음악이라는 재주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학생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기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대는 인생의 가장 값비싼 시간이며 자기 자신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국 음대의 경우 정말 음악하고 싶은 사람만 음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자기 수준에 만족할 줄 알고 남들을 의식하거나 시기 혹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지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보다는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미국에서의 독주회와 7월 NHK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많은 연주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제자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며 웃는 백주영 교수에게서 음악과 지도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 2008년에는 더 풍성한 연주 활동을 통해 백주영 교수의 열정을 느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NU Symphony Orchestra 특별 기획 연주회 ‘Verdi and Wagner’

지난 5월 14일과 21일, <관악주민과 서울대 학생을 위한 서울음대 Symphony Orchestra 특별 기획 연주회 ‘Verdi and Wagner’>가 열렸다. 본 기획 공연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관악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대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만물이 소생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캠퍼스에서 서울대 구성원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본 음악회를 통해 서울대 구성원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학기를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 특히 많은 단과대학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이후인 5월 하순에 열리는 본 음악회를 통해, 학업에 전념하느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재학생들에게 국내 최고 기량의 대학 오케스트라인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다. 본 음악회에서는 베르디(G.Verdi, 1813-1901)와 바그너(R.Wagner, 1813-1883), 두 명의 동갑내기 작곡가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베르디의 작품 ‘라 트라비아타’는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 오페라로 유명한

다. 반면 바그너의 ‘탄호이저’는 세속적인 사랑을 노래한다. 이처럼 동갑의 작곡가지만 그들이 추구한 사랑의 내용이 대비된다는 점이 흥미를 준다. 이러한 음악외적 내용과 함께 오페라 전막의 줄거리를 해설과 함께 연주함으로써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음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 공연정보

2008년 5월 14일 수요일 19시 (49동 예술관 콘서트홀)

2008년 5월 21일 수요일 19시 (문화관 대강당)

감독: 임현정

자문: 정태봉, 김덕기

주최·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지휘: 김현수, 최영선

솔리스트: 김은국, 이근형, 박소영, 김황경, 최희운, 정기열, 한지희

연주: SNU Symphony Orchestra

2008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Piano Academy

지난 2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Piano Academy’가 개최되었다.

서울대 음악대학의 김형배, 김귀현, 장형준, 문익주, 최희연, 주희성, 박종화 교수를 비롯하여 미국 New England Conservatory의 Bruce Brubaker, Colburn School of Performing Arts의 John Perry, Cleveland Institute of Music의 Paul Schenly, Manhattan School of Music의 Phillip Kawin, Eastman School of Music의 Natalya Antonova, 그리고 Mannes

Collrge of Music의 Pavlina Dokovska교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로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마스터클래스가 열렸으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영 아티스트 김규연, 임효선의 독주회가 열렸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 본 아카데미에서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으며,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대학교수들의 마스터클래스와 젊은 음악인의 독주회는 모두에게 값진 기회가 되었다.

음대 시설 개선 현황

1. 화장실 온수기 설치

음악대학 내 모든 화장실에 온수기가 설치되어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주고 있다. 이는 대학본부와 총학생회의 지원으로 기존에 냉수 밖에 나오지 않던 화장실에 온수가 공급되면서 특별한 손 관리를 요하는 연주자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2. 국악 합주실 개관

54동 3층에 국악 관현악실이 새로 증축되었다. 이전의 공간에 비해 훨씬 넓어진 공간과 음향시설 완비로 국악과 학생들의 연주수업과 연습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3. 음대 수위실 구급약 배치

‘구급약 상비제’와 관련하여 음악대학 수위실에는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있다. 구급약으로는 웨스탈, 타이레놀, 후시딘 연고, 물파스, 스프레이파스, 일회용밴드 등이 마련되어있다.

4. 음대 휴게실 농협 ATM기 설치

음대 휴게실에 농협 ATM기가 설치되었다. 이제까지 음대인들은 금융 업무를 위해 자하연 옆 농협 또는 경영대 농협까지 가야했지만, 음대 휴게실에 ATM기가 설치됨으로써 보다 빠르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음대 기본취득학점 18학점으로 상향조정

음악대학의 기본취득학점이 18학점으로 변경되었다. 08년도 1학기까지 음악대학의 기본취득학점은 인문대 등과 마찬가지로 17학점으로 제한(신입생 또는 두 학기 평점 3.3미만)되어 있었다. 많은 단대의 기본취득학점이 18학점이기에 17학점으로 제한된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강의선택의 폭이 한정되었다. 이에 제51대 실천가능 총학생회(준)는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17+1” 정책(학기당 기본취득

학점을 17학점에서 18학점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기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으며 이 결과를 가지고 결정권자인 단대 교무부학장님들과 면담하였다. 음대의 경우도 총학생회에서 교무부학장님들과 면담했을 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경영대, 농생대, 사범대에 이어 이번 2학기부터 음대 역시 기본취득학점이 18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교수 동정 및 동문 소식

【국악과】

■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 교수 임용

올해 3월,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이 서울음대 국악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지영은 6세 때부터 경주의 예술가 이말량에게 가야금과 전통무용, 소리 등을 사사하면서 전통음악에 입문하였다. 최충용, 양연섭, 김정자, 이재숙, 황병기 등 당대 최고의 스승을 사사하였으며 1987년 KBS 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하면서 연주계에 데뷔하였다. 1991년에는 정악분야의 최고의 실내악단체인 정농악회에 최연소의 나이로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김병호산조의 대표적인 젊은 연주가로서 음반 ‘젊은 산조’를 CD녹음하였다. 이지영 교수는 또한 현대음악 연주가로서 세계현대음악제(ISCM, '97), 독일 코리아 페스티벌('98), 통영현대음악제('2000), 국제 아더마인즈 현대음악페스티벌('2000) 등 국내외의 현대음악제에서 수많은 곡을 초연하고 있으며 2003년에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또한 한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융합에 관심을 가져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앙상블을 추구하는 한국현대음악앙상블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 이혜구 명예교수 백수송축가회

지난 5월 9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는 만당 이혜구박사 백수송축가회가 열렸다. 만당 이혜구박사는 한국음악학의 초석을 놓은 분으로 한국국악학회 초대회장이셨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초대교수이다. 올해로 100세를 맞이하시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축하드리는 자리를 마련코자 백수송축가회가 준비되었다. 이 날, 만당이혜구박사 백수송축논문집 봉정과 이혜구학술상 시상, 만당 선생님 말씀 그리고 축하연주와 송축연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만당 이혜구 박사는 1909년 1월 10일 서울에서 출생, 경성제국대학 영문학과를 졸업,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에 프로듀서로 입사하여 국악 프로그램 등을 담당했으며, 해방 직후 1945~1947년에는 방송국장을 역임하였다. 방송국 재직 당시 한국음악과 인연을 맺어 한국음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948년 ‘국악연구발표회’를 시작하여 現 (사)한국국악학회의 초석을 놓았으며, 1954년 한국국악학회 초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1947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現 음악대학) 교수로 부임,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가 신설에 따라 초대 학과장이 되었고, 음악대학장 역임 후 1974년 정년퇴임한 뒤에도 90대 중반까지 30년 이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양대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現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사로서 강의와 논문지도를 담당하며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었다.



【작곡과】

■ 김덕기 교수, 갈라 콘서트 Love 공연

김덕기 교수가 5월 26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리는 한국오페라 60주년 기념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 “LOVE”의 지휘를 맡아 공연하였다.

■ 이돈웅 교수,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연주

5월 14일 예술의전당에서 한국작곡가협회 주최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이 열린다. KEAMS 실내악의 연주로 작곡과 이돈웅 교수의 <피리와 실시간 음향변조를 위한 ‘피리’ (Piri for Piri and Real-time Electronic Processing)>를 연주하였다.

■ 최우정 교수, 국제 심포지엄 참가

5월 9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내외의 음악극의 경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며 그것을 향한 현실적인 방법까지 모색하는 이번 심포지엄에 작곡과 최우정 교수는 <음악극의 미래 – 문화적 정체성과 표현의 다양성(Future of the Music Theatre – Cultural Identity &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성악과】

■ 김인혜 교수, 오페라 갈라콘서트 ‘VIVA PUCCINI’공연

김인혜 교수가 5월 17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서울오페라앙상블 주최로 열리는 푸치니 탄생 150주년 기념 오페라 갈라콘서트 ‘VIVA PUCCINI’를 공연하였다. 마농레스코에서 라보엠, 토스카, 제비, 수녀 안젤리카, 잔느스키키, 나비부인, 투란도트까지 푸치니의 걸작들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김인혜 교수는 토스카를 연주하였다.

■ 박세원 교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예술 총감독

박세원교수가 5월 9, 10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08 의정부국체음악극축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예술 총감독을 맡았다. 이 공연은 서울시오페라단이 출연하며 램네프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였다.

【기악과】

■ <2008 교향악 축제>

2008 교향악 축제에서 임현정 교수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작곡가 진규영의 창작곡과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협연 강주미), R.슈트라우스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최은식 교수는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힌데미트의 비올라협주곡 ‘백조고기를 굽는 사람’을, 박종화교수는 군포프라이밀 오케스트라와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협연하였다.

■ 김영률 교수,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5월 17일 예술의전당에서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Franz Danzi와 최우정 그리고 Ludwig Thuille의 곡을 연주하였으며 피아노는 주희성 교수가 맡았다.

■ 김민 명예교수 My Life, My Music

5월 10일과 6월 14일, 예술의전당에서 명예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의 My Life, My Music 연주회가 열린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의 음악인생과 서울바로크합주단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본 공연은 그동안 음악활동을 함께해 온 김대진, 정명화, 김현곤, 최은식, 서혜연 등 동료 음악인들이 함께 출연하여 우정이 넘치는 무대를 꾸민다.